취임 후 3년 연속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광주가 자유민주주의 꽃 피워... 이제는 경제 복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성장의 과실을 분배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이다.대통령이 현직 중에 3년 연속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